

예슈아는 유대인!

예슈아께서 메시아 곧 구원자이시며 예언에 따라 다윗의 후손 즉 유다지파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것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께서 진정한 유대인이셨다라는 사실과 유대인으로써 생활하셨음에는 사실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상속에 그려진 예슈아상, 즉 성경과는 거리가 먼 헬라적 메시아, 다원주의적 구원주를 지우고 다시한번 성경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오신 배경과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5 과 누가복음 1:32 의 예언대로 다윗의 족보 계보에 따라 요셉과 미리암을 통해 나셨고 두분의 보호아래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참고로 요셉은 그 당시 유대땅에서 두번째로 흔한 이름이었으며 미리암은 가장 흔하게 쓰였던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슈아란 이름 또한 전형적으로 유대인에게 세번째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유대인의 가르침인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 난지 8 일째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1) 또한 미리암은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날수를 채우고 태를 연 장자의 몫으로 희생물을 야훼께 드렸습니다.(누가복음 [2:22](#))

예슈아의 가족과 예슈아께서는 토라의 가르침대로 매 해마다의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1](#)) 예슈아는 토라의 선생으로서 그 당시 랍비라는 명칭으로 불려 졌으며 교회가 아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38, 1:49](#))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16](#))

그외에도 예슈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마실물을 달라 청하실때도 그 여인은 예슈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지했습니다. (요한복음 4:9) 그분의 복장과 겉모습이 유대인으로서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슈아께서는 그의 겉옷이자, 기도쇼울에 술이 달려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5)

즉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이 준행한 토라의 규례대로 (민수기 15:37 과 신명기 [22:12](#)) 술달린 겉옷을 입으셨음을 성경을 통해 잘 알수있습니다 (마태복음 [14:36](#) 혈류병이 예슈아의 옷술을 만지고 병이 나은 사건) 그외에도 그분이 유대인이셨음을 공관복음서에서 충분히 밝혀 증명됩니다. 뱃시아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걸으며 온전히 말씀에 청정코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그분이 유대인이셨음을 깨닫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이스라엘(당시의 남유다 하우스)에게 주신 야훼의 법을 유대인으로써 몸소 다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후 삼백여년후에 다원주의 영의 영향하에서 콘스탄틴의 리더쉽아래 공식적으로 출발한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도 아니셨으며 기독교인도 아니셨습니다. 이천여년전에 이땅에 보내진 성령으로 잉태하신 나사렛의 예슈아께서는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이루시며 모든 인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오셨습니다. 이는 모세오경을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근본언약에서 야훼 아버지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맺으신 약속의 열매로 보내어지신 뱃시아 벤 요셉으로, 다윗왕의 후손 유대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정하여진 시간에 곧다시 오실것을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하고 따라할 삶의 양식은 예슈아께서 친히 삶의 양식으로 보여주시며 준행하셨던, 생명의 말씀인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죄로 땅끝까지 쫓겨 나가게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의의 줄기인 참 감람나무에 지속적으로 접목되어 그가 삶으로 주신 생명의 가르침을 일세기 베뢰아 사람들과 같이 경외감과 간절한 마음자세를 배워야 할것입니다. 이리할때에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뱃시아의 영, 이 동일하신 야훼의 영께서 그를 믿는자들에게 뱃시아가 진정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말씀안에서 발견되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경외하는자를 그의 영계서 도우시며 살아계신 야훼말씀 자체가 되신 우리 구원주
예슈아를 목표삼게 하시고 이미 모세와 선지서에서 기록된 믿음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축복된 선한
경주를 거뜬히 완주할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